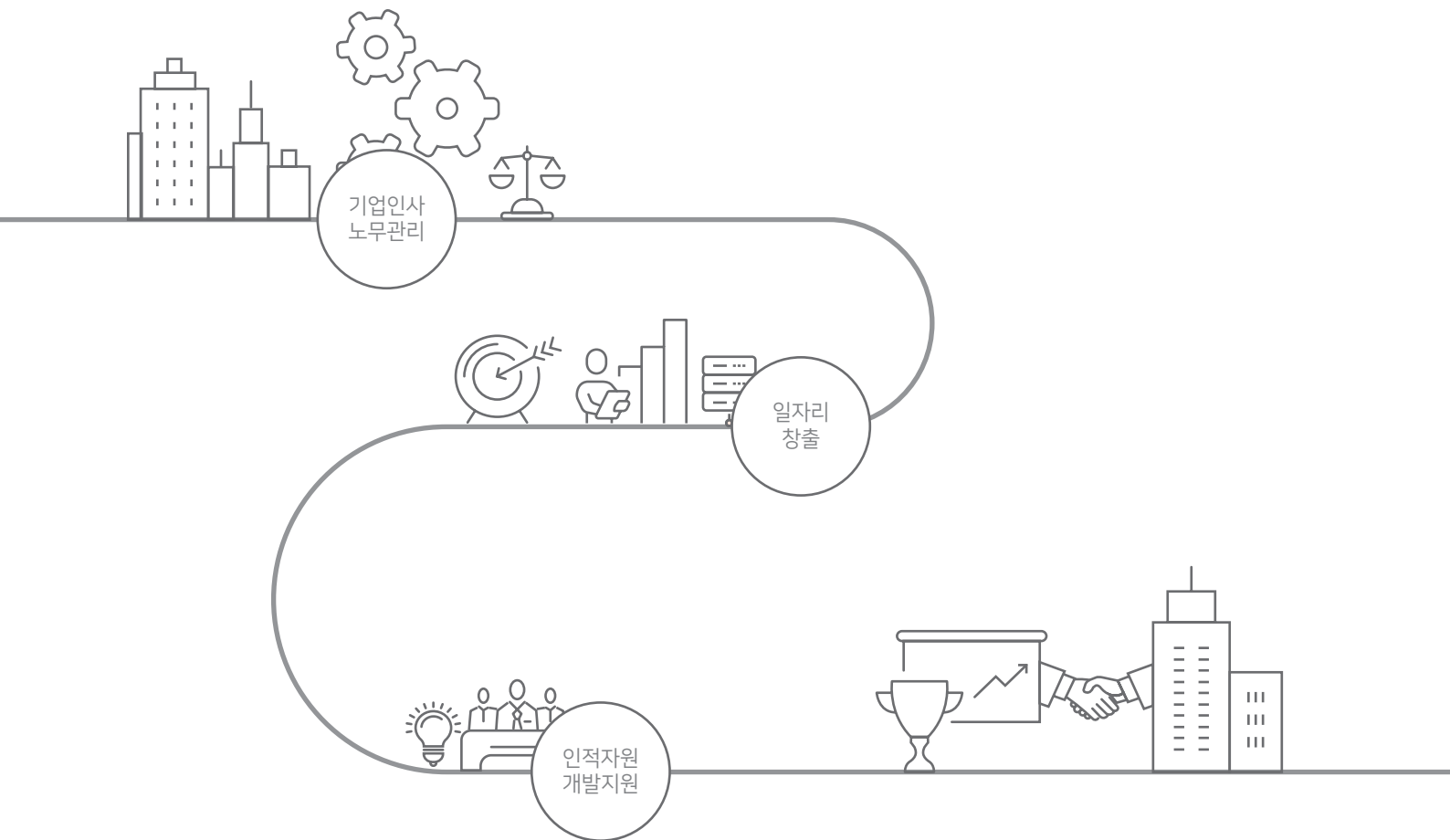


- 주간 -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광주광역시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3천 5백만원 상당 물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박흥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3천 5백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광주광역시 및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진행되

었으며, 한부모가정과 저소득층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써큘레이터와 생수 등 여름나기 물품 키트를 준비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임직원과 일반 시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모금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장마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미국 포브스·CNBC 선정‘2024 World’s Best Banks’ 국내 3위 달성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이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Forbes)’와 ‘CNBC’에서 각각 ‘2024년 세계 최고의 은행’과 ‘2024 아태지역 최고의 은행’을 선정하는 가운데, ‘2024 World’s Best Banks’ 국내 3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포브스는 미국·영국·일본 등 33개국 4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2024 세계 최고의 은행’ 403개 은행을 선정했으며, CNB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 2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2024 아태지역 최고 은행’ 200개 은행을 선정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조사에서 3위에 선정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자부심을 느끼며, 이는 광주은행의 지속적인 혁신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글로벌모터스

◆ 나주 이화영아원서 봉사활동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윤몽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생봉사단 소속 직원 60명이 지난달 29일 나주 이화영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 공헌 사업 실천의 하나로 오전 9시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이화영아원 생활관 14실, 부대시설 6실, 사무실 2실 등을 대상으로 방충망

탈착 후 물청소를 하는 청소 활동을 펼쳤다.

윤몽현 대표이사는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상생형 일자리답게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 공헌 활동에 늘 앞장서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도

◆ 캐스퍼 EV 양산 준비 착착



광주글로벌모터스(대표이사 윤몽현)가 캐스퍼 전기차 양산의 모든 생산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양산이 시작되면 올 생산 목표인 4만 8500대를 뛰어넘어 최소 5만 3000대 이상으로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더했다.

윤몽현 대표이사는 “캐스퍼 EV 생산이 다가오면서 모든 임직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 성공 양산을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을 당초 계획보다 25% 이상 증산하기로 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면서 전기차 양산에 성공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생형 일자리로 튼튼한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글로벌 캐릭터' 협업 아이템 MZ세대에 인기



을 선보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신관 지하 1층 아크메드라비는 뮤지션 '뉴진스'와 콜라보 한 글로벌 캐릭터 '파워퍼프걸'을 활용한 협업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정일 광주신세계 신관팀장은 "이번 시즌에는 콜라보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돼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와 협업한 다양한 아이템

전남대학교병원

◆ Re:Branding 2030 '새 비전' 제시



전남대병원(병원장 정신)은 지난 달 28일 오후 2시 전남대의과대학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비전선포식 & 상반기 관리자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한 새 비전인 '미래 의료의 가치를 창출하는 국민 행복의 든든한 동반자'는 진료·교육·연구·공공의료 등 전남대병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외부 요인의 변화에 대응한 노력과 도전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Practical(실용주의)', 'Prove(자율검증)', 'Patient first(환자중심)'의 앞 단어 3P로 요약되는 3대 경영방침도 정립했다.

정 신 병원장은 "비상경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남대병원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공동의 가치체계를 선포하게 돼 기쁘다"며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병원의 ESG 강화 등 병원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변화되는 만큼 구성원들과 함께 함께하는 의료, 따뜻한 전남대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일건설

◆ 전남대병원에 3천만원 기탁



한 의료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전남대병원이 최고 수준의 지역거점병원이자 국립대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갑렬(삼일건설, 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 광주불교방송)회장이 전남대병원에 3000만원을 기탁했다.

삼일파라뷰문화장학재단은 2019년부터 장학금과 학교발전기금,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 도서관 건립 기금, 산학협력 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등에 35억여원을 지원했다.

최갑렬 회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

한전KDN

◆ ICT 기술 교류 세미나 개최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정교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서부발전과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기술 교류 세미나는 △AI기반 능동적 보안관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Zero Trust Architecture) 보안 솔루션 등 솔루션 기업 전문가들을 초빙해 양사의 최신 ICT 기술을 공유하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축적된 △AI 데이

터 기반 클라우드 전략과 적용 사례 △정보보안 관리실패 평가 분석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ICT 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기술의 발전 속도에 부응하는 실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검증과 개선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며 “에너지ICT 플랫폼 전문기업의 전문성을 키우고 공공부문 사이버보안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PS

◆ 'AI 거대언어 모델' 활용해 감사기법 혁신한다



발전·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인공지능(AI) 거대 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을 새로운 감사기법으로 도입해 감사업무 혁신에 나선다.

한전KPS는 최근 본사 회의실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감사 관련 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차세대 AI감사 추진반' 킥오프 미팅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이성규 한전KPS 상임감사는 "초거대 AI시대로 전환하는 흐름에 맞춰 감사 분야에서도 공공·민간 분야가 서로 힘을 합치는 줄탁동시(峯啄同時)가 필요하다"며 "선진화된 기술을 수용하고 내부적 역량을 동원해 차세대 AI감사 추진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알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최수용 팀장

● e-mail: gjef3425@naver.com

<제1655회 금요조찬 포럼>

재난안전 인문학

(송창영 교수)

1655회 금요조찬포럼은 광주대학교 송창영 교수를 초청하여 「재난안전 인문학」을 주제로 재난 안전 예방의 중요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하였다.

최근 재난안전사고가 빈번해지고,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복잡 다양한 재난에 노출되는 시대가 됩니다.

아마 우리는 세월호 사고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했을 겁니다. 올해가 세월호 참사 10주년입니다.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선장은 방송으로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 하고 본인은 가장 먼저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몸이 불편한 어른신을 먼저 피신시키고 본인의 구명조끼를 나눠줬습니다.

1999년에 세월호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씨랜드 화재 사고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3층짜리 콘크리트로 인허가를 내고 컨테이너를 겹겹이 쌓아놓고 인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골 농로 끝에 캠핑장을 만들어 긴급상황에 소방차가 농로에 빠져버려 골든타임도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다양한 재난에서 학습하고, 교훈을 찾아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분노만 하고 재난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교통사고 사망률 최상위 국가입니다. 도로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70~80%가 안전 교육이나 제도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잘 교육해 놓고 부모들이 아이 손 잡고 무단횡단하고, 아이를 태우고 신호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위 재난사고의 공통점은 교육을 해줘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재난사고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안전에 대한 인문, 사회, 철학, 윤리의식, 인식의 문제입니다.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안전한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하고, 안전한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건전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학습 시켜줘야 합니다.

태풍이 왔을 때 예방 비용, 대응 비용, 복구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방이 가장 작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와인잔이 깨지고 난 다음 와인을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명, 한명이 바뀌면 대한민국은 안전한 사회로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경총 회원님들 중에서 만약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분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경제동향

◆ 경총,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정부 제출 (6.30)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 법인세제 개선 건의과제 주요내용 〉

- ① (법인세율 인하)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며 기업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 중앙정부 기준)을 OECD 평균 수준(22%)으로 인하하는 등 과표구간별로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
- ② (투자·연구개발 세제 지원 확대 등)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재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 법인세 최저한세율(최고 17%)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춰야 함.
- ③ (기업의 주주 환원 및 사회공헌 노력 지원)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필요.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출산·양육비용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혜택도 마련되어야 함.

〈 상속세제 개선 건의과제 주요내용 〉

- ① (상속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최고 50%에 이르는 현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25%)으로 과감하게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도 더 확대해야 함. 주가 상승이 세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불안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의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 역시 폐지해야 함.
- ② (경제 규모를 반영한 과세표준 및 일괄공제 상향 조정) 우리 상속세 과세표준과 일괄공제는 20여년 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업인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우리 상속세가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과 일괄공제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함.
- ③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우리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과세되도록 해야 함.

〈 소득세제 개선 건의과제 주요내용 〉

- 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또는 폐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자본시장 충격 방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동 세제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② (배당소득세 감면 및 주식 장기보유 인센티브 제공) 국내 주식시장 활력 증진과 국민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하거나, 납세방식 선택권(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중 택일)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③ (출산 양육 세제 지원 확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15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을 그간의 물가 및 경제여건 변화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각종 복리후생적 지원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통계청,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6.28)

- (생산) 2024년 5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Delta 1.2\%$), 서비스업($\Delta 0.5\%$)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0.7% 감소(전년동월대비 2.2% 증가)
 - ※ 전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전월대비) : 0.3(24.1)→1.3(2)→ $\Delta 2.3$ (3)→1.2(4)→ $\Delta 0.7$ (5)
 -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1.8%)에서 늘었으나, 기계장비($\Delta 4.4\%$), 자동차($\Delta 3.1\%$)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2% 감소(전년동월대비 3.5% 증가)
 -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1.9%) 등에서 늘었으나, 금융·보험($\Delta 2.5\%$), 정보통신($\Delta 1.6\%$)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5% 감소(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제조업 평균가동률) 2024년 5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8%로 전월대비 0.7%p 하락(전년동월 대비 0.4%p 하락)
 - ※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 72.1(24.1)→74.6(2)→71.4(3)→73.5(4)→72.8(5)
- (제조업 재고율) 2024년 5월 제조업 재고율은 110.9%로 전월대비 0.7%p 상승(전년동월대비 7.2%p 하락)
 - * 제조업 재고율은 제조업 재고지수를 제조업 출하지수로 나눈 값으로, 출하된 물건보다 쌓인 물건이 더 많을 때 100%를 초과.
 - ※ 제조업 재고율 추이(%) : 111.7(24.1)→110.2(2)→111.3(3)→110.2(4)→110.9(5)
- (소매판매) 2024년 5월중 소매판매는 비내구재(0.7%), 내구재(0.1%)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준내구재($\Delta 2.9\%$)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전년동월대비 3.1% 감소)

- **(설비투자)** 2024년 5월중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Delta 12.3\%$) 및 정밀기기 등 기계류($\Delta 1.0\%$)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4.1% 감소*(전년동월대비 5.1% 감소)
 * 설비투자는 '24.3월($\Delta 6.2\%$)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전월대비 기준)
- **(건설투자)** 2024년 5월중 건설투자는 건축($\Delta 5.7\%$) 및 토목($\Delta 1.1\%$)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4.6% 감소(전년동월대비 3.8% 감소)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전월대비 0.6p 하락),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5(전월대비 0.1p 하락) 기록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상반기 및 6월 수출입 동향」 발표 (7.1)

- **(총괄)** 2024년 6월 수출은 570.7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1% 증가했으며, 수입은 490.7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5% 감소
 ※ 수출은 지난 2023년 10월(4.9%)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수출 증감률 추이(% , 전년동월비) : 4.4('24.2) → 3.1(3) → 13.6(4) → 11.5(5) → 5.1(6)
 - 6월 무역수지는 80.0억달러 흑자를 기록(13개월 연속 흑자)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41.1('24.2) → 42.9(3) → 14.5(4) → 48.6(5) → 80.0(6)
- **(품목별)** 15대 주력품목(전체 수출의 약 78% 차지) 중 선박, 철강, 이차전지 등 9개 품목은 감소한 반면, 컴퓨터, 반도체 등 6개 품목이 증가
 ※ 2024년 6월 품목별 수출증감률(%)
 : (컴퓨터) 58.8, (반도체*) 50.9, (디스플레이) 26.1, (석유제품) 8.4, (석유화학) 4.8, (무선통신) 3.9, (가전) $\Delta 0.3$, (자동차) $\Delta 0.4$, (바이오헬스) $\Delta 6.0$, (일반기계) $\Delta 8.1$, (섬유) $\Delta 10.8$, (차부품) $\Delta 11.6$, (이차전지) $\Delta 20.5$, (철강) $\Delta 24.3$, (선박) $\Delta 39.4$
 * 6월 반도체 수출은 134.2억달러를 기록했고, '23.11월(12.9%) 이후 8개월 연속 증가
 ▶ 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 , 전년동월대비) : 66.7('24.2) → 35.7(3) → 56.1(4) → 54.5(5) → 50.9(6)
- **(국가별)** 對일본(6.9%), 對중남미(9.0%), 對EU(18.2%), 對CIS(33.0%) 등 수출은 감소했으나, 對중국(1.8%), 對중동(2.1%), 對인도(8.5%), 對아세안(11.8%), 對미국(14.7%) 등 수출은 증가
 * 對미국 수출은 '23.8월(2.4%)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

〈 2024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

- 2024년 상반기 수출은 3,348.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했으며, 수입은 3,117.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5% 감소.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231.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지난해 상반기 262.9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됨.

◆ 통계청,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7.2)

-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4%)은 2023년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3.1(24.2)→3.1(3)→2.9(4)→2.7(5)→2.4(6)

- (지출목적별) 12개 부문 가운데 기타 상품 및 서비스(4.5%), 교통(3.9%),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3.8%) 등 12개 부문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 (품목성질별) 상품은 농축수산물(6.5%)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2.7%)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상승
- 2024년 6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8% 상승

◆ 고용노동부, 「20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6.27)

〈고용 부문('24.5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2,013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 2천명(0.8%) 늘어나며 2021년 3월부터 39개월 연속 증가
- (입·이직) 입직자는 91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4천명(△2.5%) 감소했고, 이직자는 88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0.5%) 증가

〈근로실태 부문('24.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386만 6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원(4.3%) 증가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9.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8시간(3.1%) 증가
 - ※ '24년 4월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증가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20일→21일)한 영향

◆ 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7.3)

- 정부는 ①소상공인·서민 지원, ②물가안정·생계비 경감, ③건설투자 등 내수보강, 관리 등 정책을 포함하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 ① (소상공인·서민 지원)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주요 비용(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부담 완화, 과감한 채무조정,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및 소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등

* ①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②보증부 대출 만기연장, ③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 ②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농수산물 할인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6조원 지원,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中企 근로자 소득 확충을 위한 소득세 감면 지원 강화 등

- ③ (내수보강)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24년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하여 건설투자 등 활성화 뒷받침,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기금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 시설투자 자금지원(52조원)중 27조원을 하반기에 공급, 하반기 무역금융 192조원 지원 등

- ④ (잠재리스크 관리)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 강화, '24년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 추진 등

○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024년 2.6%*로 전망

* 지난 2024년 1월 전망치(2.2%) 대비 0.4%p 상향 조정

※ 2025년 성장률은 2.2%로 전망

- (소비) 민간소비는 가계 이자 부담이 높은 수준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둔화,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증가 등이 소비 제약요인을 완화시켜 1.8% 성장 전망.
- (투자) 설비투자는 수출 증가에 따른 투자수요 확대로 2.0% 증가할 전망. 건설투자는 신규공사 위축, 부동산 PF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어 1.2% 감소할 전망.
- (수출)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 등으로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을 지속하여 2024년 연간으로는 9.0% 증가할 전망
- (고용) 취업자수는 '22~'23년간 큰 폭 증가의 기저영향 등으로 작년(33만명)보다 둔화된 23만명 증가 예상
-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며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할 전망
- (경상수지) 상품수지가 개선되면서 작년(355억달러 흑자)보다 큰 폭 증가한 630억달러 흑자를 전망

2. 노사동향

◆ 경영계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중단 촉구

- 경총 등 경제6단체는 7. 2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
 - ※ 경제6단체 :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4건(① 박해철 의원안, ② 김태선 의원안, ③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안, ④ 김주영 의원안)은 지난 6. 28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 경영계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
- 또한, 손경식 경총 회장은 7. 4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 등 주요 현안 관련 경영계 입장 전달
- 한편, 정부도 노조법 개정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온 가운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6. 27 입법 청문회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
 - 이정식 장관은 “대부분의 노조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하고 있어 불법이나 손배가압류가 생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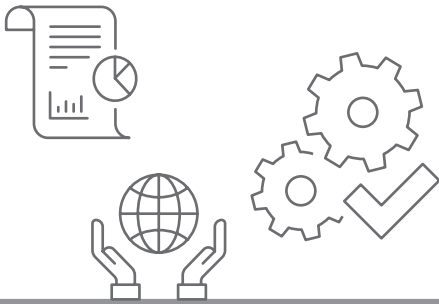
◆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표결 방해

-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한 노사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7. 2)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
 - ※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여부 투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총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
 - 사용자위원은 구분적용이 시급한 업종이 많이 있지만,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5개 업종(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 택시운송업)부터라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호소
- 한편,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 탈취, ▲공익위원 및 사용자위원 협박, ▲투표용지 탈취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투표 진행 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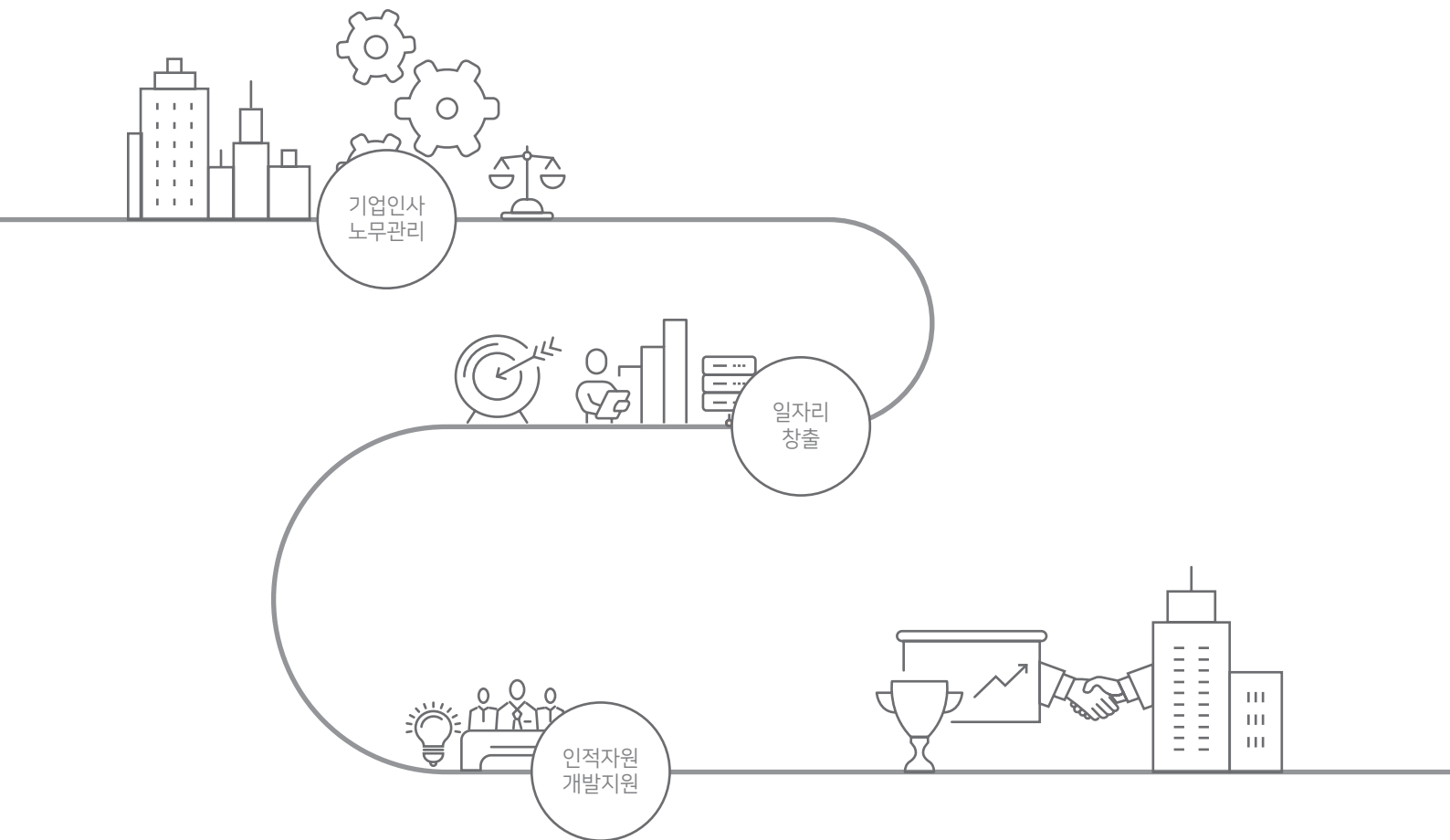
- 사용자위원회는 이러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무리한 투표 방해 행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7. 4)에 불참했으며, 노동계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장외집회 개최

◆ 금속노조는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며 총파업(7. 10) 강행 예정

- 금속노조는 ▲정권 퇴진, ▲노조법 제2·3조 개정, ▲타임오프 폐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우며 7. 10 총파업 강행 예정
 - ※ 금속노조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5. 31, 7. 12)에 걸쳐 등 노동개혁 저지 등 정치적 요구를 슬로건으로 불법 정치파업 강행
- 주요 완성차사가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지부는 7. 4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7. 10, 7. 11 각 주야 4시간 파업 결의
 - ※ 금속노조는 주야 4시간 이상 1차 총파업(7. 10)을 진행하고, 2차 총파업(7. 18) 예고
 - 현대차지부는 7. 1 교섭에서 회사가 기존 제시안보다 상향된 ▲기본급 106,000원 인상, ▲성과급 450%+15,000,000원+주식 25주 지급 등을 제시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수용 거부
 - 현대차지부 요구안 : ① 월 기본급 159,800원 인상, ② 성과급(순이익의 30%) 지급, ③ 상여금 인상(現 700%→900%), ④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동일), ⑤ 주4.5일제 도입 등
 - 한국지엠지부는 7. 3 2시간 파업에 이어 7. 10 금속노조 파업 동참 예고
 - 한국지엠지부 요구안 : ① 월 기본급 159,800원 인상, ② 당기순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청년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 60만원) ◦ 2년 후 : 1인 480만원 	716-3424
2	뿌리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뿌리기업 중 청년, 신중년, 중장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만 35세 ~ 49세 채용 시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 60만원) 	716-3503
3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하 중소기업 ◦ 만 40세 이상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 	609-8964
4	청년성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신규 인력채용 기업(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 ◦ 신규 채용기간 : 최근 1년 이내 ◦ 청년층 연령 : 만 15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 	654-3427
5	북구 굿잡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및 북구 일대 중소기업 ◦ 광주광역시 구직자(취업준비 청년, 여성, 중장년 등) ◦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혹은 지역 인재를 구인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일자리 동영상 제작 ◦ 취업매칭 지원 ◦ 고용부 워라벨 인증지원 	654-3427
6	소규모사업장 산업안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미만 제조업 무상 컨설팅 지원 ◦ 회원사 산업안전 매뉴얼 제작시전문가 자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 ◦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716-3501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